



07-44 (통권 275호)

200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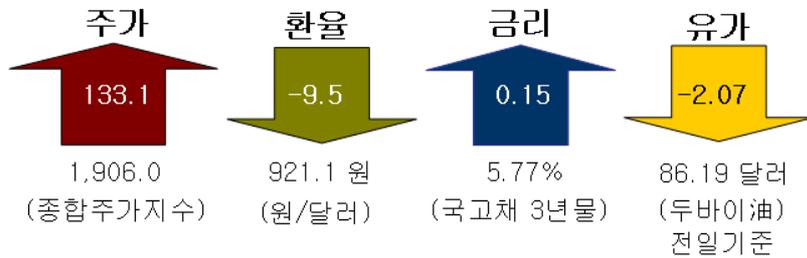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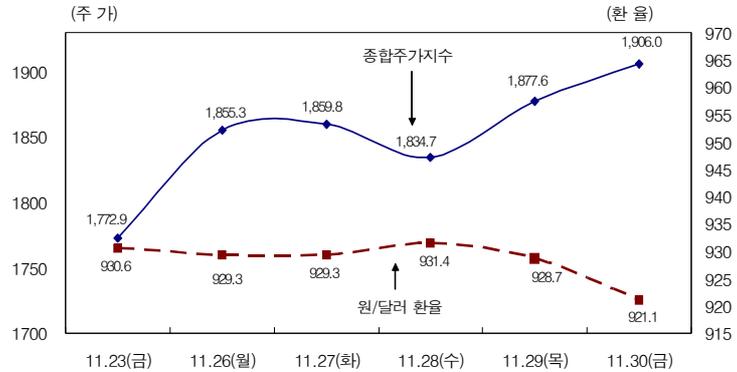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세계 금융시장의 세력 변화와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23~11.3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세계 금융시장의 세력 변화와 시사점	1
주간 경제 동향	18
□ 실물 부문 : 추석요인으로 산업생산 호조	18
□ 금융 부문 : 국채 금리 급등세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an@hri.co.kr)
 □ 대 외 거 래 이 원 형 연 구 위 원 (3669-4031, lwh@hri.co.kr)

Executive Summary

□ 세계 금융시장의 세력 변화와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미국은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쌍둥이 적자,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2002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는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이 감소할 기미가 없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경기 침체에 의한 금융권의 부실 문제 등으로 미국 경제의 기반이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는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GDP의 비중이 감소할 때 신흥 개도국 GDP의 비중 또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신흥 개도국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신흥 개도국과 미국 경제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경제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의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위상약화에 따르는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세력 변화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세계 금융시장의 세력 변화

첫째,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2000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화의 외환보유고 비중이 70.5%에서 2007년 2/4분기에는 64.8%로 감소하면서 외환 보유와 운용이 다변화되고 있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외환자산의 다변화가 지속된다면, 과거 영국의 스텔링화와 같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국의 금융 세계화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 금융의 세계화가 2003년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외자본거래(대외 자산과 부채의 합)의 GDP 비중 또는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은행 거래를 금융 세계화로 표현할 때 아시아 NIEs의 대외자본거래의 GDP 비중은 393%(2004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GDP를 고려하지 않은 자본의 유출입 기준으로는 EU, 영국 그리고 신흥국가의 순으로 금융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국제 자본시장에 4대 신흥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세계 자본

시장은 선진국의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중심이었으나 4대 신흥세력으로 불리는 오일 달러, 아시아 중앙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자산규모가 급증하는 것이다. 현재 신흥세력의 자산규모는 총 8.7~9.1조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 세력 자산규모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맥킨지는 2012년에 이들의 자산 규모가 선진국 연기금의 75%인 21.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남미 금융권과 중국의 국제금융시장 진출 등 새로운 금융권이 등장하고 있다. 중남미 7개국은 남미은행 설립에 합의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자본으로 설립될 남미은행은 지역경제의 협력 및 발전을 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남미지역의 경제협력은 금융권을 이용한 경제협력으로 선진화되어 미국 금융권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자본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 공생은행(ICBC)은 마카오의 성행은행과 인도네시아의 PT은행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민생은행은 미국의 화교계 은행인 UCB(United Commercial Bank)지분을 인수하였다. 또한 중국의 국영은행인 개발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영국의 블랙스톤 그룹과 바클레이즈의 지분을 인수하고 제휴를 맺어 국제 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 자본 소비가 미국에서 신흥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2001~2005년 신흥시장에서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유입이 연평균 32.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3~2005년 신흥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43%, 직접투자는 80.9% 증가하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은 수익을 찾아 신흥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신흥시장의 자본유입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파급 효과

첫째, 국제 통화가 다양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세계 외환보유고의 25%가 유로화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달러가치 하락과 탈 달러화의 영향으로 유로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12월에 유로화의 유통액(7,990억 달러)이 달러화의 유통액(7,590억 달러)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전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거래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2004년 44.4% → 2007년 43.2%) 보이는 반면, 유로화는 기

존의 거래 비중(2004년 18.2% → 2007년 18.0%)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흥시장(2007년 20%)과 중국위안화의 거래비중(2004년 0.1% → 2007년 0.4%)은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무역규모를 바탕으로 자국통화를 지역통화 및 국제통화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하여 자국 통화를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삼으려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통화의 거래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세력인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중동 산유국들은 보유 자산을 달러화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 1.1조 달러 중에서 달러 표시 자산은 7,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만일 달러가치가 5% 하락하면 3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달러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오일 달러 투자자의 자산 규모는 3.4~3.8조 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에 달러가치 하락에 의한 손실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보유 달러 자산을 매각하면 달러가치 하락을 부추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흥세력의 탈 달러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흥 국가의 자본유입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누적의 영향으로 기초적 환율 절상이 예상된다. 환율 절상률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자본유입/GDP)의 증가율은 11.3%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명목실효환율은 1% 절상된 반면 ASEAN-4 국가에서는 (자본유입/GDP)비율이 5.6% 상승하고 환율은 8.8% 절상되어 자본유입에 대하여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향후에도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의 환율은 중국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과 함께 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 민간자본 유입의 GDP 비중을 보면 유럽신흥국은 11.77%, 아시아는 8.92%를 기록하고 있어 신흥시장에서 과도한 자본유입에 의한 자산버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원화의 국제화 및 크로스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은 자국 화폐의 국제화를 위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급변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위상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원화차

입의 한도 확대 등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또한 유로화, 엔화의 수요를 파악하고 외환거래 기관을 설정하는 등 외환크로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중일 금융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세력 등장으로 인하여 자본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금융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화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아시아 국가들간의 긴급유동성 지원 협조체제(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켜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고, 국가간 통화 바스켓 제도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환율체계를 유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내금융기관의 세계진출을 도모해야한다.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업은 통합되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거쳐 금융투자사의 형태로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금융사 M&A시, 직계 자회사들 둔 해외 금융사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증권사들이 자본규모를 확대하여 M&A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와 ‘자기자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해외 금융기관의 M&A가 가능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외환보유고 다변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통화 다극체제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달러화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유외환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무역 결제통화를 다변화하여 달러화의 보유를 축소해야한다.

다섯째, 신흥시장의 투자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한다. 신흥시장의 고성장과 환율 절상에 따라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의 고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외환자유화의 영향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금융·실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흥시장의 자본유입이 증가하여 자산버블 위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해외 자산시장 등 경기여건과 위험성 점검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투자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한다.

< 세계 금융시장의 세력 변화와 파급효과 >

문제의 제기

- 미국의 기초체력 약화 : 쌍둥이 적자, 서브프라임 부실 확대
- 세계 경제의 미국 GDP 비중 감소 : 신흥 개도국의 세계 경제 비중 증가
- 세계 금융 시장의 질서 재편 가능성

세계 금융시장의 세력 변화

- 기축통화 달러화의 위상 약화 : 달러화 약세 지속
- 금융세계화의 주도 세력 변화 : 아시아, EU, 영국의 금융세계화 역할 확대
- 자본시장의 4대 신흥세력(오일 달러, 아시아 중앙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자산규모 급증
- 신 지역 금융권의 등장 : 남미은행 설립 합의, 중국 금융권의 해외 진출
- 신흥시장으로 자본 (소비) 이동 : 신흥시장의 고성장, 자본 유입 지속

파급 효과

- 탈 달러화 :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 다양화
- 국제 통화의 다양화 : 유로화 거래 비중 증가
- 중국과 일본의 국제통화 경쟁 : 위안화, 엔화의 국제 통화 격상 노력
- 신흥시장의 환율 절상 : 자본유입에 의한 환율 절상과 자산가치 버블

정책적 시사점

- 원화의 국제화, 크로스 외환시장 활성화 : 비거주자 원화차입확대 등
- 동아시아 지역 통화 협력 체계 : 환 변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한 통화 바스켓 제도 구성
-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 금융사의 M&A,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
- 외환 보유고의 다양화 :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다양화 전략
- 해외투자의 안전성 : 해외 투자의 위험성 점검과 정보 제공으로 해외투자의 안정성 확보

1) 문제의 제기

○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

- 쌍둥이 적자 : 2002년 이후부터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2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006년에는 8,117.7억 달러를 기록하며 GDP대비 6.2%까지 상승하였고 IMF는 2007~2008년에도 6%대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03년 GDP대비 3.5%(4,12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보장 지출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는 금융권의 부실 문제와 소비 침체로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미국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영업 손실이 증가하는 등 금융권의 부실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IMF도 최근 미국의 주택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007년 1.9%, 2008년 1.9%로 지난 7월의 전망치를 각각 0.1%, 0.8% 하향 조정¹⁾

<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경제성장률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E)	2008(E)
경상수지	-4,596.41	-5,221.01	-6,401.48	-7,548.48	-8,114.77	-	-
재정수지	-1,578	-3,776	-4,127	-3,183	-2,482	-	-
경제성장률	1.6	2.5	3.6	3.1	2.9	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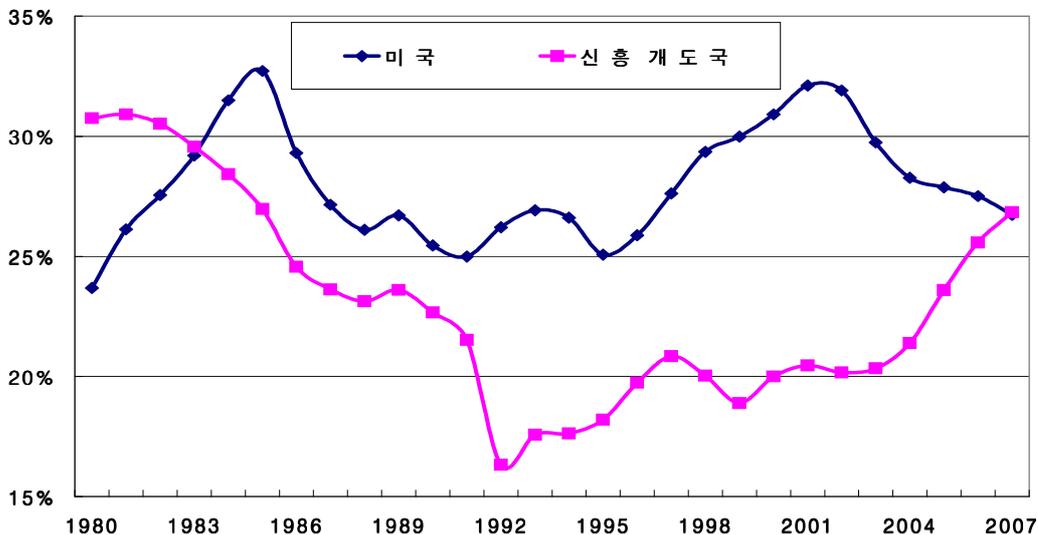
자료: 미 상무부, BEA and CBO,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 Fall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 Fall.

○ (미국 경제의 비중 감소) 최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신흥 개도국의 GDP 비중 변화로 인하여 미국 경제의 영향력이 변화하고,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이 초래되고 있음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GDP 비중은 2002년 32%에서 2006년에는 28%로 감소하였고, 신흥 개도국의 GDP비중은 1992년 16%를 기록한 이후 2002년 20%, 2006년에는 26%로 증가세를 지속함
- 세계 경제의 GDP 비중 상관관계는 미국과 신흥 개도국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여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나타냄
 - 신흥 개도국과 미국의 상관관계가 과거에는 양의 관계에서 최근에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미국 경제의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를 의미하며 세계 금융 시장의 질서 재편을 초래하고 있음

< 미국, 신흥 개도국, EU의 세계 경제 GDP 비중 >



자료 : IMF

< 미국, EU, 신흥 개도국 GDP 비중의 상관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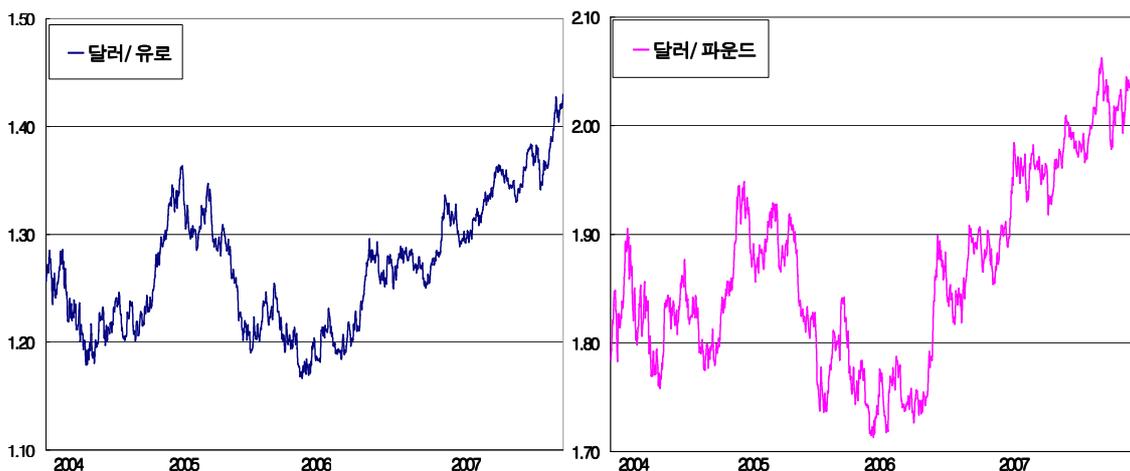
	미국과 신흥 개도국
1987 ~ 2007년	-0.108
1980 ~ 2002년	0.016

2) 세계 금융시장의 세력 변화

○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 약화) 2005년 이후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역할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

- 2005년 말 이후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여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5년 11월 17일 유로/달러 환율은 1.66에서 2007년 10월 19일 1.42로 하락, 달러/파운드 환율은 2005년 11월 28일 1.71에서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2007년 10월 19일 2.04를 기록함
-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화의 외환보유고 비중은 2000년 70.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7년 2/4분기 말 현재 64.8%로 하락하였음²⁾
 - 반면 동 기간 유로화 비중은 18.8%에서 6.8%p 증가하여 25.6%를 기록
-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과거 영국의 스텔링화와 같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영국 스텔링화는 세계 외환자산 비중이 1899년 64%에서 1913년 48%로 감소하면서 기축통화의 위상이 약화되었고 이후 다극 통화체제로 이전

< 달러화 가치 하락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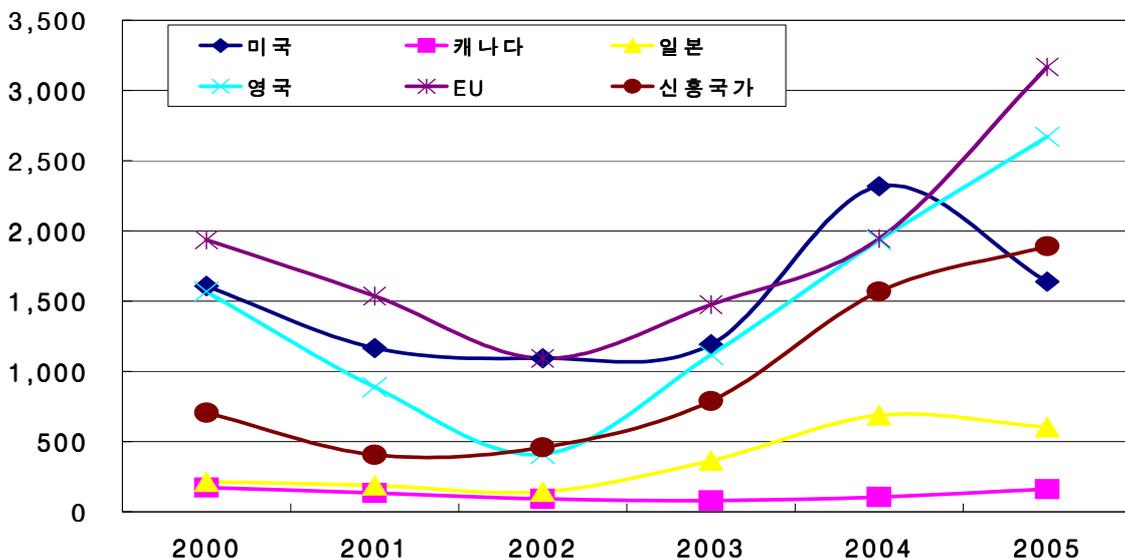
2) 외환보유고의 통화 구성 비중 추이

○ (금융 세계화의 주도 세력 변화) 금융 세계화의 주도 세력은 미국에서 EU, 영국, 신흥 국가로 이동함

-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외환보유고, 은행거래에 의한 자본 유출입을 금융 세계화³⁾로 나타내면 2005년 이후 EU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함
- 2004년 이후 EU, 영국과 신흥시장의 자본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미국의 자본이동을 추월함
- 2005년에는 미국의 자본 세계화 수준은 EU, 영국과 신흥국가보다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자본 세계화의 미국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 세계화 : 글로벌 자본이동 >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Market Development Issues, 2007년 4월

주 : 신흥국가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시아, 유럽, 남미의 신흥국가들과 홍콩, 이스라엘, 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포함하고 있음.

3) IMF는 금융세계화를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World Bank는 경상수지계정의 민간자본,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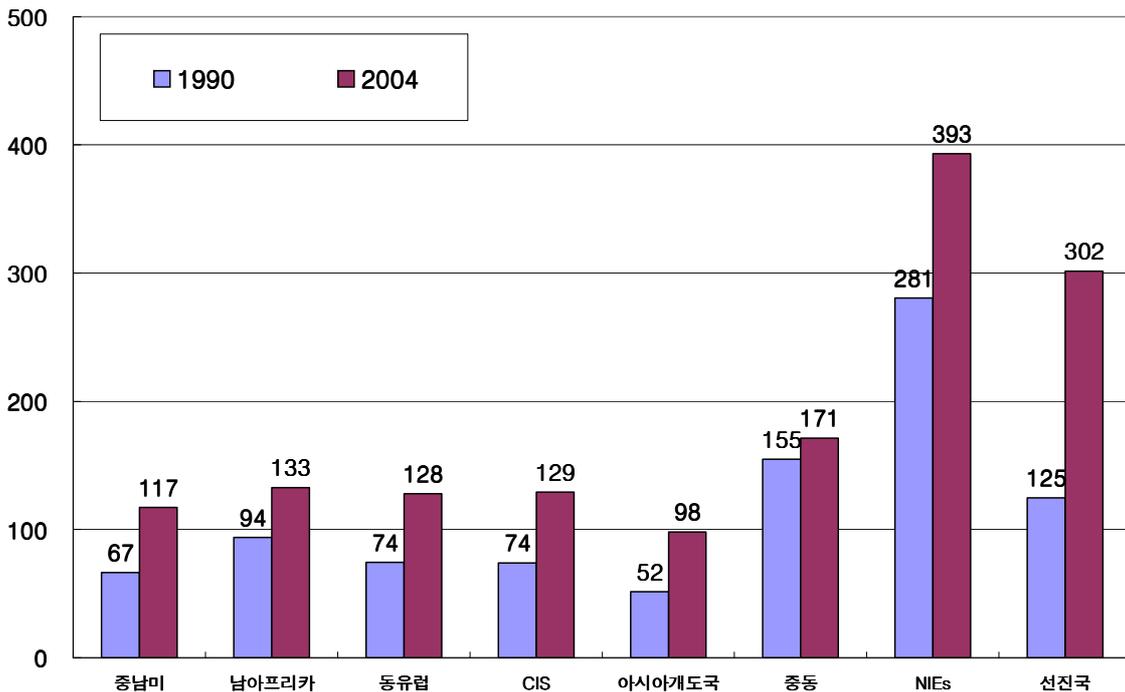
○ (아시아 국가의 금융세계화 확대) 2002년 이후 아시아 NIEs 국가의 GDP 대비 자본 유출입 급증은 아시아의 금융 세계화 역할 확대를 의미함

- 대외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GDP 비중을 금융 세계화로 나타낼 때, NIEs, 선진국, 중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본의 해외 이전으로 발생하는 자본거래의 GDP 비중으로 나타낸 금융 세계화는 아시아 N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포트폴리오, 직접투자, 은행거래 등 투자와 관련된 GDP 대비 자본 거래는 아시아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NIEs의 GDP 대비 자본거래는 393%로 선진국의 302%를 초과함

< 지역별 금융 세계화 >

(자본거래/GDP)

(단위 : %)



자료 : IMF, Financial Globalization, World Economic Outlook, 2007년 10월

주 1)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은행거래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자본거래(자산과 부채)의 합을 GDP의 비중으로 나타냄

2) 선진국은 미국, 서유럽국가, 영국, 일본, 캐나다; CIS는 러시아 독립국가 연합; NIEs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동은 중동국가들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

○ (자본시장의 4대 신흥세력)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 선진국의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에서 오일 달러, 아시아 중앙은행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

- 2006년 말 현재 4대 신흥세력인 오일 달러 투자자, 아시아 중앙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8조 7,000억~9조 1,000억 달러로 추정됨⁴⁾
- 원유가의 급상승에 의한 오일 달러와 아시아 중앙은행의 금융자산은 2000~2006년 연간 19~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⁵⁾
 - 2002년 이후 원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6년 산유국의 순 자본 유출은 4,840억 달러로 연평균 35.1%의 증가율을 기록함
 - 또한 2006년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3.1조 달러로 세계 외환보유액의 62.7%를 그리고 중국은 1.06조 달러로 21.4%를 차지함
- 2012년 4대 신흥세력의 금융자산 규모는 최대 21.4조 달러에 달하여 세계 자산시장의 중심이 신흥 세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연기금 펀드는 21.6조 달러 (5% 증가율), 뮤추얼 펀드는 19.3조 달러 (8% 증가율), 그리고 보험자산은 18.5조 달러(11% 증가율)를 보유
 - 2012년 글로벌 연기금 펀드는 29.0조 달러, 4대 신흥세력의 자산 규모는 최대 21.4조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⁶⁾
 - 따라서 2012년 4대 신흥세력의 자산규모는 연기금 펀드의 3/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자본 시장 4대 신흥세력의 자산 규모 >

(단위 : 조 달러)

	자산 규모 ('06년 말 기준)	연간 성장률 ('00~'06)	2012년 예상치
오일 달러 투자자	3.4~3.8	19%	5.9 ~ 6.9
아시아 중앙은행	3.1	20%	5.1 ~ 7.3
헤지 펀드	1.5	20%	3.5 ~ 4.6
사모 펀드	0.7	14%	1.4 ~ 2.6
합 계	8.7~9.1		15.9~21.4

자료 :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New Power Brokers : How Oil, Asia,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are Shaping Global Capital Markets', 2007년 10월

4)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의하면 오일 달러 투자자의 350억 달러는 헷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투자되어 4대 신흥 세력의 자본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추정

5) 본문에 사용된 자료는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데이터를 이용

6) 맥킨지 보고서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50~70달러일 경우, 오일 달러 투자자의 자산규모는 5.9~6.9조 달러로 추정함

○ (신지역 금융권의 강화) 남미은행의 출범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중남미 경제권의 영향력 또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11월 3일 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IMF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구의 역할을 하는 남미은행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짐
 - 중남미 7개국(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이 참여한 재무 각료회의에서 남미은행의 설립 일정에 합의함
 - 남미은행은 중남미지역 국가의 자본금으로 출범하여 대출 수익 등 은행의 기본 업무에 충실한 투자 수익으로 운영할 계획임
 - 남미은행은 중남미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투자 자금 대출 등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역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한 자금은 IMF와 같은 거시정책 등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제공할 계획임
- 남미은행이 설립될 경우 남미지역의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베네수엘라는 석유 개발에 의한 수입을 이용하여 남미 경제 동맹을 위한 주변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하고 있음⁷⁾
 - 최근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지역의 석유와 니켈 등 자원 개발 협력에 합의하고 볼리비아와 니카라과도 참여하여 지역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남미은행이 개설될 경우, 금융 투자 지원을 바탕으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미지역의 경제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됨
- 남미의 지역은행 설립과 경제 협력은 미국 금융권의 영향력에서 탈피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단기적으로 남미은행의 설립은 남미국가들의 자금 이용을 확대하여 미국에 대한 자본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 협력 기반의 남미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7)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의 인프라개발, 자동차, 트랙터 지원, 에콰도르의 정제시설에 40억 달러 지원, 아르헨티나 정부채권 50억 달러구입, 니카라과에 값싼 연료와 의료, 비료, 트랙터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영향력 확대와 경제동맹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자료: 로이터, 2007년 10월 17일, Venezuela's Chavez spends heavily to help allies

- (중국 금융권의 해외진출) 중국 은행은 해외 금융기관 인수 및 지분 확보 등으로 해외진출을 본격화 되었고, 중국자본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공상은행 (ICBC :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은 마카오의 성행은행과 인도네시아의 PT은행을 인수하여 국제영업의 기반을 마련함⁸⁾
 - 2007년 8월 중국의 공상은행은 마카오의 성행은행(Seng Heng Bank)의 지분 80%를 5억 8천 3백만 달러에 인수함
 -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의 PT은행의 지분 90%를 인수함
 - 중국의 민생은행⁹⁾은 미국의 화교계 은행 UCB(United Commercial Bank) 지분 9.9%를 2008년 말까지 2단계에 걸쳐 인수하기로 함¹⁰⁾
 - 지분 매입의 첫 번째 단계에서 민생은행은 9,700만~1억 4,500만 달러를 지불하여 지분의 4.9%인 약 540만주를 2007년 말까지 구입
 - 두 번째 매입 단계인 2008년 말까지 115백만~172백만 달러에 UCB의 지분을 9.9%까지 보유하고, 2009년 말까지 보유 지분을 20%로 확대 가능함
 - 중국 국영은행인 개발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해외은행의 지분 인수와 경영 제휴로 국제금융 시장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 개발은행은 영국의 블랙스톤 그룹의 10%지분을 30억 달러에 인수함
 - 또한 중국 개발은행은 바클레이즈의 지분 3%를 소유하고 있으며 바클레이즈와 제휴를 맺고 원자재와 리스크 관리에 협력하기로 함
 - 이와 같이 중국의 은행들은 해외 은행의 인수와 제휴를 통하여 국제 영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금융 시장의 영향력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은행의 해외진출 >

	해외 은행 지분 인수
공상 은행	마카오 성행은행 (지분 80%), 인도네시아 PT은행 (지분 90%), 아프리카 스탠다드 बैं크 그룹 (SBG) (지분 20%)
민영 은행	미국 UCB (지분 9.9%)
개발 은행	영국 바클레이즈 지분 (3%), 블랙스톤 (지분 10%),

8) 로이터, 'ICBC leads China banks looking for overseas buys', 2007sus 10월 11일

9) 중국의 민영은행인 중국민생은행(Minsheng Bank)은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2007년 상반기 순이익이 66%(3억7천 6백만 달러) 증가함

10) 로이터, 'China's Minsheng Bank to buy into UCBH', 2007년 10월 8일.

○ (신흥시장의 자본소비 증가)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자본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신흥 시장으로 이동

- 2001 ~ 2005년 신흥시장의 자본 유입은 은행의 자본 차입보다 직접투자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이 높으며 자본유입 평균증가율은 32.2%를 기록함
 - 2005년 신흥시장의 직접투자는 3,612억 달러로 전체 자본유입의 50.4%, 포트폴리오 투자는 전체 자본 유입의 31%인 2,217억 달러 차지하고 있음
 - 반면 기타투자(은행의 차입과 예금)는 15.8%로 비중이 가장 낮음
- 2003년 이후 신흥 시장의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증가하여 포트폴리오 투자에 의한 자본유입이 증가함
 - 포트폴리오 투자는 2003년 911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217억 달러로 143% 증가함
 - 직접투자는 동기간 80.9% 증가하여 최근 포트폴리오 투자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 시장의 자본 유입 증가율은 32.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성장률이 높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향후 포트폴리오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직접투자는 증가세의 지속이 예상됨
 - 미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자본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신흥시장의 유형별 자본 유입 >

(단위 : 10억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직접 투자	225.5	182.2	199.6	272.8	361.2
포트폴리오 투자	11.4	-10.7	91.1	143.6	221.7
기타 투자 ¹¹⁾	-57.6	1.8	124	202.8	133.4
합계	179.3	173.3	414.7	619.2	716.3
(증가율)	(-39.7)	(-3.3)	(139.3)	(49.3)	(15.7)
경제성장률	3.1	4.2	5.6	7.2	6.5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Market Development Issues, 2007년 4월,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11) 기타투자는 은행의 차입

3) 파급효과

○ (탈 달러화) 세계 금융시장의 신세력인 아시아 중앙은행과 오일 투자자들은 달러가치의 하락에 따라 달러 표시 자산 보유를 축소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3.1조 달러 중에서 65%인 2조 달러표시 자산으로 구성되어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기피하기 위해 달러표시 자산의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외환 보유고 1.1조 달러 중에서 0.7조의 달러 자산은 달러가치 5% 하락에 350억 달러의 손실 가져옴
- 또한 중동 산유국¹²⁾은 달러가치 하락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고 오일 투자자들의 보유자산을 다양화 할 계획인 것으로 보임
 - 오일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는 3.4~3.8조 달러에 달하며 이들이 조성한 국부펀드의 투자자금 규모는 1.5~1.8조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¹³⁾
 -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화 페그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⁴⁾
- 중국과 산유국의 투자자금은 달러화 가치의 급속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유 외환과 투자를 다양화할 것으로 보임
 - 달러 자산 매도는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보유외환을 다양화하여 달러가치 하락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임

< 2006년 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및 달러 자산 >

(단위 : 조 달러)

	일본	중국	아시아주요국	아시아 전체
외환 보유고	0.9	1.1	1.1	3.1
달러 보유자산	0.6	0.7	0.7	2
기타 통화자산	0.3	0.4	0.4	1.1

자료 : McKinsey, 2007년 10월

주 : 2006년 기준 아시아 주요국은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12) 원유 수출로 발생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투자되어 금융자산, 부동산, 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유입되어 있음

13) 맥킨지는 오일 투자자 자금 중에서 정부투자 자금으로 유입되어 국부펀드로 활용되는 자금의 규모는 1.5~1.8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McKinsey Global Institute, 'The New Power Brokers, How Oil, Asia,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are Shaping Global Capital Markets', 2007년 10월

14) 아랍에미레이트는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1986년에 각각 자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페그제를 도입하였음

○ (국제 통화의 다양화) 달러화 약세와 유럽 중국 남미 등 지역 경제의 영향력 확대에 인하여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 제3의 국제 통화 거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유로화) 유로화의 거래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시중은행 기준 유로화 유통액은 달러화를 초과함
 - IMF 통계에 따르면 세계 외환 보유고의 주요 통화 비중은 달러화가 약 50%내외이고 유로화는 약 25%이나, 향후 유로화 결제 비중 및 외환보유고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6년 말 유로화의 유통액은 8,000억 달러(6100유로)에 달하여 달러화의 유통액 7,590억 달러를 초과하였음¹⁵⁾
- 외환시장 전체에서 거래되는 통화의 달러 비중은 감소하고 유로화, 위안화, 신흥시장의 통화의 거래비중이 증가함¹⁶⁾
 - BIS 외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환거래에서 유로화의 비중은 2004년 18.6%, 2007년 18.5%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반면 전체 외환거래에서 달러화 비중은 2004년 44.4%에서 43.2%로 소폭 감소함
 - 전체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거래비중은 2004년 0.05%에서 2007년 0.25%로 증가하였고 2007년 신흥시장 통화의 거래비중은 20%를 차지함

○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통화를 지역·국제통화로 격상시키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 중국은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 통화 및 국제 통화로 격상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심포지엄’에서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에서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

15) 파이낸셜타임즈(FT)가 각 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제외하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분석한 결과임

16)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April 2007', Sept.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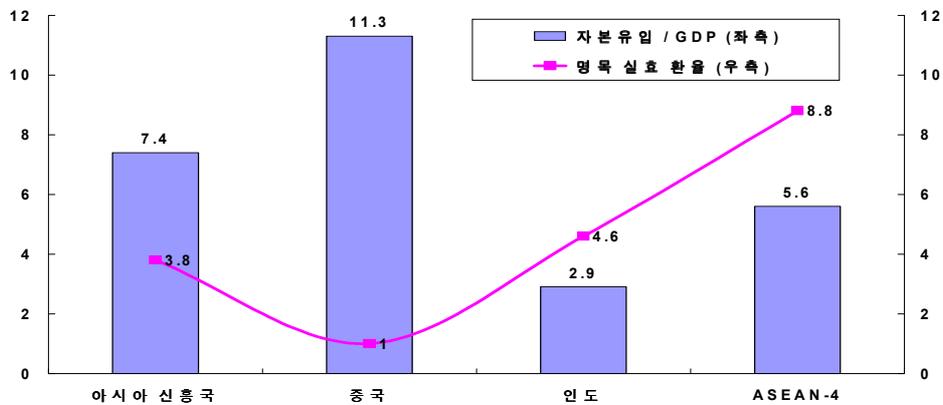
- 외환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마찰이 예상되나 2007년 외환 보유고는 중국(1.3조 달러)이 일본(0.93조 달러)을 초과하는 등 중국의 무역·외환 등 경제 규모의 급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은 높음
- 중국이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위안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위안화의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함
- (엔화) 엔화는 일본의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증가한 엔캐리 자금의 영향으로 국제 통화의 역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엔캐리 자금은 2,000억~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를 집계할 수 없는 실정임
- 해외에서 통용되는 엔화의 증가는 국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임
- 아시아 지역에서 엔화를 지역통화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거부감으로 지역통화로 통용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세계에서 사용되는 엔캐리 자금의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한다면 국제 통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자국통화의 국제통용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
- (신흥시장의 환율 절상) 신흥 시장의 자본유입과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른 아시아 신흥 시장의 기초적 환율 절상이 예상됨
- 2006년 이후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신흥 국가(Emerging Asia)의 명목 실효 환율의 평균 변화율은 국가별 차이를 나타내며 상승함¹⁷⁾
- 2006년 이후 아시아 국가 환율의 평균 변화율에 격차가 나타나는 통화 가치의 비동조화 현상이 발생함
- 2006년 이후, ASEAN-4 환율의 평균 변화율은 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GDP 대비 자본유입과 경상수지 흑자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중국 위안화 환율의 평균 변화율은 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G7국가의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과 자본유입의 영향으로 아시아

17) IMF가 발표한 명목 실효환율은 달러화의 각 지역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어 명목실효환율이 100을 초과할 때 달러가치의 하락과 아시아 지역의 환율 절상을 의미함

신흥국가 환율 또한 절상될 것으로 판단됨

- GDP 대비 자본유입이 가장 높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절상 폭이 가장 낮게 나타나 IMF와 G7국가는 위안화의 절상률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을 강화
- 향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환율의 조정이 발생할 경우 국가별 환율 절상률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06 ~ 07년 아시아 신흥국가의 자본유입 및 환율의 평균 변화율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년 10월

- 주 1) Emerging Asia :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ASEAN-4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 주 2) 자본유입은 민간자본 순유입과 경상수지 흑자의 합으로 나타냄

- 2005 ~ 2007년 신흥시장 전체의 민간자본 유입액은 1조 7,127억 달러를 기록함
- 신흥시장 전체의 민간자본은 2005년 5,196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9.4% 증가한 6,203억 달러를 기록함
-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신흥국과 유럽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2005년 이후 매년 2,000억 달러를 초과함
- 지난 3년간 유럽 신흥국으로 유입된 민간자본은 9,884억 달러로 아시아 신흥국에 유입된 6,893억 달러를 초과함
- 반면, 남미(2,286억 달러)와 중동/아프리카(806억 달러)지역의 민간자본 유입은 3,092억 달러를 기록하여 신흥시장 전체 유입액의 18%에 불과함
- 신흥시장에 유입된 민간 자본의 對 GDP 비중은 중동/아프리카 및 유럽의 신흥국에서 11%를 초과하고 있어 신흥시장의 경제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자본

- 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과도한 자본유입에 의한 자산 가치의 버블은 유럽 신흥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신흥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

(단위: 10억 달러, %)

		2005	2006	2007	2008(E)
민간자본 순유입	남미	70.0 (3.13)	52.6 (3.86)	106.0 (5.27)	88.1
	유럽신흥국	204.1 (10.70)	234.0 (11.95)	276.1 (11.77)	274.2
	중동/아프리카	25.0 (9.38)	25.8 (11.90)	29.8 (10.24)	33.6
	아시아신흥국	220.5 (5.75)	260.5 (8.06)	208.3 (8.92)	197.2
		519.6	572.8	620.3	593.1
경제성장률		6.2	7.2	7.5	7.1

자료 :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MF

주 : 괄호 안은 민간자본 유입의 GDP 비중

4) 정책적 시사점

○ (원화의 국제화 및 크로스 외환시장 조성) 한국 경제의 무역규모, 외환거래 등을 고려하여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장기적 추진 방안을 확대 실시하고 크로스 외환시장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 보유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원화가 국제 통화로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원화의 국제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의 확대 등을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제 무역 및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비중과 거래 상대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원화의 통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국제 통화의 다양화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원·엔 시장 등 크로스 외환시장을 조성하고, 우수 금융기관들의 크로스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제 통화의 다양화는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크로

스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 및 시장 조성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필요함
 ·원/엔 등 크로스 외환시장의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
 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크로스 외환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¹⁸⁾

-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확대하는 형태는 우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원·엔 등
 크로스 외환 거래의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 원·엔 등 크로스 외환거래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전문딜러
 는 외환거래를 위한 매수 매도 호가를 공시하여 외환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외환 현물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크로스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공시하여 크로스 외환
 시장을 활성화하는 딜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

○ (아시아 통화 협력 체계) 달러화 약세와 함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중일 공동 대응 및 통화협력체계를 구축

-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약세와 외환 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한중일 공동 대응 및 통화협력 노력을 강화
 - 미국, 유럽, 동아시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금융협력 체계를 통하여 원화의
 위상을 제고
 - 달러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간
 통화 바스켓 제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양국간 긴급자금 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간 체제로 전환
- 또한 달러화의 의존도를 줄이고 유로화와 엔화의 비중을 높이는 멀티 통화
 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마찰과 혼란을 조정할 수
 있는 대화채널 등 국제협력체계의 조성이 필요함

○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

18) 표한형, “2007년 달러화 약세 기조 지속 전망”, 「한국경제주평, 06-36」, 현대경제연구원, 2006. 9. 18.

- 해외 금융사의 M&A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 해외금융사 M&A시, 직계 자회사를 둔 해외 금융사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법 개정이 요구됨
 -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의 M&A 촉진을 위한 자본규모 확대를 위해 ‘금산분리’의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은행 이외에 보험, 종합금융회사 등과 외환거래가 빈번한 대기업들의 해외 금융업 진출을 확대
 -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금융기관은 자신에게 적합한 외환거래를 통하여 금융기법을 개발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금융안정을 위한 적정자본 규모이기 때문에 최적자본 규모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해외 금융사 M&A시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략적인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¹⁹⁾
 - 또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자본 규모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자본 규제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 달러화 약세의 지속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고 통화 다극 체제에 대비

- 장기적으로 달러화 약세 및 통화 다극 체제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 및 무역결제 통화의 다변화 추진
 - 달러 보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내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외환을 다변화해야함

○ (해외투자의 안전성) 해외 직접 투자 등 자본 유출입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외자본시장의 위험성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의 안전성을 제고해야함

19)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금융사의 지분을 취득 시에 위험자산인 증권 보유 증가로 인하여 자본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외 금융사 M&A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본유출입에 관련된 정책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환율의 안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자본과 외환시장의 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함
- 정부 당국은 해외 자산시장 버블 등 해외 경기여건과 위험성을 점검한 후에 해외 투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투자의 안정성과 정책 합리성을 제고해야함

이원형 연구위원 (3669-4031, lwh@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추석요인으로 산업생산 호조

○ 10월 중 산업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 출하호조와 추석이동(2006년: 10월, 2007년: 9월)으로 인한 조업일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하였음

-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의복 등의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 등의 판매 부진으로 전월대비 1.4%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판매가 늘어 7.9% 증가하였음
- 한편 설비투자는 좀체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0월 중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통신기기 등의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였으나 추석요인 감안시 전년동기(9~10월) 대비 2.5% 감소하였음
-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달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향후의 경기국면 예고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건설수주액, 기계수주액 등 7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4%p 상승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3/4	4/4	1/4	2/4	3/4	9월	10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4.8(1.2)	4.0(0.9)	4.0(0.9)	5.0(1.8)	5.2(1.4)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2.9	4.5	7.1	5.3	8.6	8.5	7.9
		설비투자추계	6.3	7.4	11.8	5.1	11.3	12.1	-1.9	-8.3	3.3
		건설수주	7.3	9.0	37.1	27.1	26.3	26.3	-5.6	-9.8	104.7
		수출	12.0	14.4	16.3	13.8	14.7	14.1	9.6	-0.9	24.2
	공급	산업생산	6.3	10.1	11.3	5.2	3.3	7.0	8.3	0.3	17.8
취업지수(만명)		2,286	2,315	2,331	2,330	2,284	2,370	2,361	2,362	2,375	
실업률(%)		3.7	3.5	3.3	3.2	3.6	3.2	3.1	3.0	3.0	
	수입	16.4	18.4	21.1	13.0	13.4	14.4	7.0	-2.2	27.2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4	61	-17	0.3	45	23	26	
	무역수지(억\$)	232	161	25	75	24	52	48	24	22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5	2.2	2.1	2.4	2.3	2.3	3.0	
	생산자물가	2.1	2.3	3.1	2.0	1.8	2.5	2.7	2.1	3.4	
	생산재물가	3.9	4.8	5.8	1.8	2.1	3.3	2.5	4.7	7.8	
	최종재물가	0.3	0.5	0.6	0.4	0.3	1.1	0.6	1.2	1.6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국채금리 급등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

- 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투자손실 우려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3.84% 까지 하락하였으나, 시티그룹의 전환사채 발행(75억 달러)의 영향으로 시장이 안정되면서 소폭 반등하였으나 전주말 대비 하락(국채 10년물 : 4.00→3.93%)
- 환율: 달러화는 美 3/4분기 GDP 성장률의 상향조정과 그 동안의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소폭 강세 시현 (\$/€ : 1.4838→1.4744, ¥/\$: 108.3→109.9)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 원화가치의 트리플 강세

- 주가: 단기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급등세를 보이다 소폭의 조정세가 이어지다, 미국 연방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따른 영향으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772.9→1,906.0)
- 금리: 은행권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30일 채권시장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1.5조원 매입함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전주말 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62→5.77%)
- 환율: 주중반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주 후반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손절매성 매도가 이어지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930.6→921.1원)

○ (전망)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 상존으로 주가의 변동성 확대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4	3/4	4/4	1/4	2/4	3/4	11.23	11.30 ¹⁾
국내	거래소 주가	1,295.2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772.9	1,906.0
	국고채3년(%)	4.92	4.57	4.92	4.76	5.26	5.46	5.62	5.77
	원/달러	948.9	946.2	929.8	940.9	923.8	915.1	930.6	921.1
해외	DOW	11,150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2,981	12,799
	Nikkei	15,505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4,889	14,889
	미국채10년(%)	5.14	4.63	4.70	4.57	5.02	4.59	4.00	3.93
	일국채10년(%)	1.93	1.68	1.69	1.60	1.88	1.69	1.43	1.49
	달러/유로	1.2790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838	1.4744
	엔/달러	114.42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08.30	109.93
	두바이(\$/배럴)	67.17	57.33	56.71	63.12	66.42	76.64	88.26	86.19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1.29) 기준